



영원한 신권

“멜기세덱 신권 … 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아론 신권과 침례 의식을 받고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아, 우리는 경전을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경전의 더욱 신비로운 구절들의 참 뜻과 의도가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74) 이러한 통찰을 갖고 그들은 물문경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직 중요한 축복, 즉 교회를 조직하고 신권 직분과 정원회를 설립하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야 했다.

침례 요한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축복은 조셉과 올리버가 아론 신권을 받은 직후 그들에게 주어졌다. 고대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스케하나 강 근처 한적한 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조셉은 이후 이렇게 선언했다. “사스케하나 강에서, 사스케하나 군 하모니와 브룸 군 콜스빌 사이의 광야에서 자신들이 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졌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로다!”(교리와 성약128:20)

그 이후의 세월 동안, 조셉 스미스는 여러 다른 고대의 신권 소유자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얻는 데 필요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 그들은 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선두에 서게 될 선지자를 훈련하기 위해 왔다.



고대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신권의] 열쇠는 언제든 복음이 전해질 때면 하늘로부터 와야 했습니다.”

제3대 교회 회장이었던 존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 및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로 여러 경륜의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조셉에게 나타나 각기 그 시대에 누렸던 여러 가지 열쇠, 권능, 권리, 특권 및 [허가를 주었습니다. … 어느 정도의 지식과 예지, 신권과 권세와 계시가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그들이 살았던 각기 다른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지녔던 사람들의 성역과 그 사람들을 통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¹

존 테일러 회장은 또한 이렇게 선언했다. “만일 여러분이 조셉에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즉각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키와 생김새를 비롯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그들에 관해 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²

1842년 9월, 선지자는 지상에 회복된 지식과 신권 열쇠에 대해 생각할 때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교회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쿠모라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곧 나타날 책이라 …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음성이요, 가브리엘의 음성이요, 라파엘의 음성이요,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사들의 음성이니, 모두가 그들의 경륜의 시대, 그들의 권리, 그들의 열쇠, 그들의 준귀, 그들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임할 일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도다!”(교리와 성약 128:20~21)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신권은 영원하며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지니고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세와 권능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³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고, 아담은 제일회장단의 직을 얻었으며 대대로 계승되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 창조의 시기에 이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그가 곧 경전에 언급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신권은 다음으로 가브리엘인 노아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신권의 권세에서 아담 다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에 부름 받았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산 자의 아버지였으며,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땅에서,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신권은 영원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히브리서 7:3 참조) 이 열쇠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늘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 열쇠가 하늘에서 계시될 때, 그것은 아담의 권세에 의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한데 모아 평의회를 갖고, 인자의 오심에 대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다니엘 7:9~14 참조) 그(아담)는 인류의 아버지,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이며, 열쇠를 가진 모든 자가 이 대 평의회에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 인자가 그의 앞에 설 것이며 그에게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께 이양하리니, 이 직분은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인류의 머리로서 존속될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조직하셨을 때 모든 영을 그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아담)가 머리이며, 그에게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열쇠들은 먼저 그에게 주어졌고, 그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신권은 영원합니다. 구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엘리아)는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되었을 때 그들에게 열쇠들을 주었습니다. 신권은 영원하여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으며,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의식에 변경이 없는 한, 신권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는 곳마다 신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신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적합한 계승 절차에 따라 내려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신권을 받았으며 그들은 이 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아담이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천만 천사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로 오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2~24 참조)”⁴

고대에 신권의 열쇠를 지녔던 선지자들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사업을 일으키는 일에 합류했다.

“저는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에서 아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아담)가 그들을 모두 축복했으며, 마지막 세대에 임하게 될 일을 예언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한 연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히브리서 11:10] 성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신권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기에 그들은 오늘날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려 하였으며, 여러 일라이어스가 일어나 이 영광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들도 그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이 나타날 날이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대해 말했으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한데 모으실 것이요, 이 열쇠들을 받은 자들이 모두 그곳에 있게 될 것이나, 우리 없이는 그들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지만 그 자녀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몹시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내려 보내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리라.’ (마태복음 13:41) 이러한 권세를 지닌 자들이 모두 내려와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작으나 큰 나무를 이루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듭니다.(마가복음 4:30~32 참조) 새들은 천사들이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자녀를 한데로 모읍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저는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에서 아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없고, 우리 없이는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인자가 내려올 것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만 천사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⁵

신권의 의식은 태초부터 제정되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다니엘서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다니엘 7:9)라고 표현된 분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시조이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상이며, 다른 곳에서는 혈통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미가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끝날까지 있을 그의 후손들의 구원을 위한 의식의 계획이 밝혀졌으며, 그에게 최초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알려졌으며 지금 이후로도 계속 알려질 것입니다. 아담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경륜의 시대 끝까지 계시될 모든 경륜의 시대가 아담을 통해서 밝혀졌으며 또 밝혀질 것입니다. …

“… [하나님께서] 의식들이 영원히 동일하도록 하였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으며,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그 의식들을 계시하기 위해, 즉 그것들을 알려 주시게 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브리서 1:14)

“이 천사들은 주님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미가엘, 즉 아담의 지시에 따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정하신 영광스럽고 완전한 질서와 영광을 통해 권능과 계시와 영광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부르지 않고 성임하지 않고 택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9~10)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계명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질서입니다.

“아담이 태초부터 계시와 계명과 의식을 받았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희생 제물을 바쳤다면, 성임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으며 주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권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경륜의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이 감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모든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는 권한은 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그 감리 권한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바칠 때까지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끝에 올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은 성임받은 자들이 의로움으로 계속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제물을 의롭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⁶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통로이다.

“경전에는 두 가지 신권이 언급되어 있으니,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곧 레위 신권입니다. 비록 두 가지 신권이 있다고는 하나,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곧 레위 신권을 포함하고 머리의 위치에 있으며, 신권에 관한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고, 지상에 있는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권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에서 계시됩니다.

“이 신권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혹은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릴’ (욥기 38:4~7 참조) 지르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그것은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신권이며 하나님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 다른 모든 신권은 다만 이것의 일부분이요, 가지이며, 권능과 축복은 그에 속하고 그것들은 이 신권에 의해 유지되고, 다스려지며 인도 받습니다. 이 신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한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그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⁷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성약은 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멜기세덱의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인 의식을 집행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아론 신권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을 지닌 자들은 권능과 축복의 열쇠를 지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과 제사들입니다. 사실상, 그 신권은 신정 정치의 원리이며,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삶을 집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올법을 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3) 멜기세덱 신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신권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

“... 외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로서 이루어지는 레위(아론) 신권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멜기세덱 신권은 맹세와 성약으로 이루어집니다.”⁸

“멜기세덱 대신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이며 ... 이 신권에는 특정한 의식이 따르며 그 의식을 통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다. ... 신권에서 오는 큰 특권의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 신권의 특권은 계시를 받는 것과 더불어 경책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⁹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부분, 즉 등급이 있습니다. ... 모든 선지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했습니다.”¹⁰

“나는 여러분이 모두 완전을 지향하며 경건의 비밀을 더욱 더 깊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¹¹

사람이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신권에 성임되어야 한다.

신앙개조 제5조: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인수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¹²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계시를 통해 혹은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성임되어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들이 계시 없이 혹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다른 나타내심 없이 어찌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아론은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부름을 받았겠습니까?”¹³

“천사는 고넬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면 베드로를 불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사도행전 10:21~22 참조) 베드로는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육신을 가진 자로서 신권의 열쇠를 지닌, 혹은 신권의 권세를 지닌 합법적인 집행자가 있다면 침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성역 사업을 위해 먼저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두셨습니다.(에베소서 4:11~12 참조) 하늘의 송고한 율법으로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대로 하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상에서 결코 행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바울은 인간의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자신의 의무에 관해서는 주님에게서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며, 그는 주님에게서 온 똑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통해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사절들 중 한 명으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받는 똑같은 권능, 즉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16:19 참조)”¹⁴

신권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신권은 인간의 몸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몸의 지체는 각기 다르고 그 역할도 각기 다르나, 모두가 필요하며, 어느 한 지체라도 없으면 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 만일 한 제사가 자신의 임무, 부름 그리고 성역을 이해하고 성신으로 전파한다면, 그의 기쁨은 제일회장단 일원의 기쁨만큼 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봉사는 교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며, 교사나 제사의 봉사도 마찬가지이다.”¹⁵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각기 다른 직분과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일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의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임명된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낮은 직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관리하도록 부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지위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행하라고 임명하신 것 이외의 직분을 열망하는 어리석음과 터무니없는 생각에 대해 말했으며, 사람이 각자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분과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열망해야 합니다.”¹⁶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록을 복습한다.(101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본 장 전체에 걸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의 계승을 통해 내려온 신권 권세의 사슬에 대해 간증했다. 여러분은 왜 이 교리가 그에게 있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리였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오늘날 이 교리를 이해해야 하는가? 조셉 스미스가 설명한 권세의 사슬은 어떻게 각 사람의 신권 권세선과 관련이 있는가?
- 이 장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사용한 영원한, 영원 등의 단어에 유의한다. 이 용어들은 신권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의식들이 영원히 동일하도록 하였고” “그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107~108쪽) 이러한 가르침은 어떻게 복음의 의식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가?
- 멜기세덱 신권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복습한다.(108~109쪽) 멜기세덱 신권이 복음의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멜기세덱 신권의 이러한 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 본 장의 마지막 두 단락을 복습한다.(111~112쪽) 교회 회원들 각자가 주님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엘마서 13:1~12; 교리와 성약 27:5~14; 84:33~44, 109~110; 107:6~20; 121:34~46

주

1. 존 테일러, *Deseret News: Semi-Weekly*, 1882년 4월 18일, 1쪽; 단락 구분 변경.
2. 존 테일러, *Deseret News: Semi-Weekly*, 1877년 3월 20일, 1쪽.
3. *History of the Church*, 4:425; 1841년 10월 3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 모임 기록에서 발췌,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0월 15일, 577쪽.
4. *History of the Church*, 3:385~388; 현대화된 구두법; 1839년 7월 경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5. *History of the Church*, 3:388~389; 원문에는 두 번째 단락 첫째 대괄호에 이 말씀이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1839년 7월 경,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6. *History of the Church*, 4:207~209;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가 준비하여 1840년 10월 5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에서 낭독한 설교에서 발췌.
7. *History of the Church*, 4:207; 철자 및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가 준비하여 1840년 10월 5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에서 낭독한 설교에서 발췌.
8. *History of the Church*, 5:554~555;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1843년 8월 27일, 일리노이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와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항목 3 참조.
9. *History of the Church*, 2:477; 현대화된 구두법; 1837년 4월 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Messenger and Advocate*에서 발표됨, 1837년 4월, 487쪽.
10. 1841년 1월 5일, 윌리엄 클레이튼이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를 보고하면서 인용함; 존 엘 너틀, "Extracts from William Clayton's Private Book," 5쪽, 존 엘 너틀의 일지, 1857~1904년, 엘 톰 페리 특별 소장품, 브리검 영 대학교, 유타 주 프로보;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복사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1. *History of the Church*, 6:363; 1844년 5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블레이크 보고함.
12. 신앙개조 1:5.
13.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갬런드에게 보낸 편지,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4쪽;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14. "Baptism,"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설, 1842년 9월 1일, 905쪽; 현대화된 문법;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15. *History of the Church*, 2:478; 단락 구분 변경; 1837년 4월 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Messenger and Advocate*에서 발표됨, 1837년 4월, 487쪽.
16. *History of the Church*, 4:603, 606;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40쪽, 세 번째 항목 참조.